

# 긴급 환율 점검



김호정 Economist  
hojung.kim@yuantakorea.com

임지윤 Research Assistant  
jiyeon.lim@yuantakorea.com

## 다시 찾아온 부담과 느껴지는 충격

경험적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국제금리 상승을 경유해 달러 강세 압력으로 반영. 최근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도 중동 정세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미국의 본격적 참전으로 그간 형성된 시장 포지션의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당사국들의 호전적 태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장 포지션의 급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간 옵션 시장에서의 유가 하락 베팅 증가, FX시장에서는 달러 숏포지션 누적 등의 포지션 쏠림이 형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현재 형성된 포지션이 뒤바뀔 가능성이 발생한 상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극단적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에 기반한 달러 숏포지션 되돌림과 함께 달러가 강세 반전할 기분이 마련.

해당 흐름에서 발생할 달러 강세는 위험회피 성향을 확대, 강세 압력이 확대되었던 원화에 약세 압력으로 반영될 가능성.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 중.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 여파로 원달러 환율 전일 대비 +10.9원 상승, 1369.6원 기록. 19일에는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 가능성 제기 만으로 전일 대비 +10.8원 상승, 1380.2원에 마감.

향후 FX시장의 변동성은 이란의 대응에 따른 국제유가 레벨 변화에 강하게 연동될 것으로 예상. 지난해 중동지역 분쟁 사례를 참고하면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근래 볼 수 없던 이례적 이벤트들이 다수 발생했지만 \$75~\$80대에서 제한적인 영향에 그쳤음. 당시에는 원유 공급망이 크게 저해되지 않았으며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의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과 자해적으로 원유 공급망 봉쇄 가능성도 고려해야할 상황. 또한 현재는 성장 및 물가에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FX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다변량 VAR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 WTI 75\$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5원~1,360원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WTI 85\$ 수준에서 1,390원~1,420원 수준으로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 WTI 90\$ 수준에서 1,430원~1,460원 수준으로 1분기 고점 수준까지 오버슈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표본 외 동적예측을 통해 확인.

##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호정)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